

2026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제22회 전북 어린이 연극제

2026. 10. 28.(수)~10. 30.(금) 3일간
삼례문화예술촌 실내 공연장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교육연극연구회·전북교사극단

대회 목적

- 어린이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마련, 연극을 통한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는 계기 제공
- 어린이 연극의 창의성을 회복하고 어린이를 위한 잔치 마련
- 교육 매체로서 연극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감성과 소통 중심의 연극 교육 활성화

대회 개요

- 기간 : 2026. 10. 28.(수) ~ 10. 30.(금) 3일간
- 장소 : 삼례문화예술촌 실내 공연장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교육연극연구회·전북교사극단

대회 일정

날짜 시간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1회차 공연 13:30~14:00	<개막식> 13: 20		
	『부모고시』 - 고창부안초등학교 - 『아진이의 눈물』 - 옹동초등학교 -	『꿈을 찾아서』 - 무풍초등학교 -	『잡아먹지 않을게!』 - 전주홍산초등학교 -
2회차 공연 14:10~14:40	『소원을 말해봐』 - 전주전라초등학교 -	『내 친구 고고』 - 전주서문초등학교 -	『혼자가 되는 법』 - 장수초등학교 -
3회차 공연 14:50~15:20	『시간 정지 연구 보고서』 - 치문초등학교 -	『용서할 결심』 - 소양초등학교 -	『우리 안의 우리』 - 술산초등학교 -

※ 공연 시간은 당일 각 학교 공연 소요 시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시상 및 심사 기준

단체상

최우수 작품상 2교
함께 빛은 연극 예술상 3교
어깨 동무 화합상 2교
오감만족 무대상 2교
박수 갈채 소통상 1교

개인상

최우수지도상 교사 1인
최우수창작상 교사 1인

영역	심사 세부 내용	배점
연기 및 표현력	- 등장인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사,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생동감있게 표현하는가?	30
작품 구성 및 창의성	- 작품의 주제가 명확하고 내용이 창의적이며, 이야기의 전개가 흥미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가?	30
협동성 및 무대 완성도	- 출연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교육적 측면과 무대공간과 소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연극적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40

제22회 전북 어린이 연극제를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교육감 천호성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가 무대 위에서 활짝 피어나는 「제22회 전북 어린이 연극제」 본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연극제를 준비해 주신 전북교육연극연구회와 전북교사극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종합예술

연극은 이야기와 몸짓,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입니다.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들은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고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며 창의성과 자기표현력을 키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힘을 기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전북 어린이 연극제는 이러한 연극의 교육적 효과에 공감하고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어져 온 자리입니다.

결과보다 과정과 개성을 존중하는 전북 연극제

올봄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선생님들은 다양한 연극 연수에 참여하며 지도 방법을 고민했고, 학생들은 작품을 만들어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결과보다 과정과 개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협동심, 창의적인 연출, 관객과의 소통, 전북만의 이야기 발굴, 그리고 멋진 연기까지, 본선에 오른 팀들이 지닌 저마다의 빛나는 강점을 발견하여 격려하고 시상하는 축제입니다.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시간

무대 위의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객석의 친구들과 관객들이 함께 웃고 공감할 때 연극은 더욱 풍성하게 완성됩니다.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은 준비한 공연을 자신 있게 선보이고, 관객 여러분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 

교실에서 피어난 연극의 씨앗, 22회 전북어린이연극제 축하와 희망의 문을 열며

전북교육연극연구회, 전북교사극단 두르륵

스무 해 남짓 전, 교실 수업의 변화를 꿈꾸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지역 학교에 어린이연극과 교육연극이라는 찬란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배움과 연수를 거듭하며 다져온 교사들의 노력이 따스한 온기가 되어,
교실은 아이들의 창의와 감성이 자라나는 살아있는 무대로 피어났습니다.

최근 전국이라는 더 넓은 바다에서 으뜸의 찬사를 받으며 연속해서 눈부신 결실을 피워냈지만,
어린이연극은 아직 따스한 조명을 오롯이 받지 못한 채 고요한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시와 디지털이라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어 다채로운 상상력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고자 합니다.
배움과 성장 속에 피어나는 학교연극을 기성 어른 연극의 잣대로 가능하려는 그릇된 시선 속에서도,
어린이연극제가 지켜온 참된 가치와 위상을 옹골게 세우며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과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위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성장'과 '배움', 그리고 '미래 예술'이
하나로 피어나는 어린이연극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등불을 밝히며 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오신
전북교육연극연구회, 교사극단 선생님들의 숭고한 노고와 식지 않는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실이라는 작은 무대 위에서 연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피워내시는
모든 선생님께 가슴 깊은 존경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6. 10. 28. (수) 13:30~14:00

부모고시

고창부안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이승화 / 정광익 공연시간 | 30분



작품소개

부모가 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가까운 미래, 2030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고시 사관학교'에 입소하며 벌어지는 유쾌한 코믹 성장 연극입니다. 기상천외한 육아 훈련을 마친 아이들은 과연 무사히 부모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작품의도 및 줄거리

부모가 되는 데도 시험과 자격증이 필요한, 2030년. 아이들은 훈련을 통해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만, 막상 닥친 실전 육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진짜 부모가 되는 법은 서툴러도 부딪히며 끝내 품어주는 진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시험으로는 채점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유쾌하게 전합니다.

등장인물 소개



학원 원장 - 전예한(5)
강사1 - 정수빈(6)
강사2 - 지하드(5)
연수 - 정서윤(5)
라리 - 정혜원(4)
승민 - 박민준(4)
잔향 - 황수민(6)
애기 로봇 - 박누리(2)
스태프 - 고예승(6), 한가람(5), 박하리(4)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톨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고창부안초등학교는 '일 년에 연극 한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연극 동아리 '연극꾸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인 <부모고시>는 저희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아이들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1학기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화 제작을 비롯해 연극배우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혔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본 작업에 돌입해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부모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대?'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이번 작품은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며 직접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물론이고 9~10월의 휴일까지 반납하며 뜨겁게 연습해 온 아이들의 열정이 담긴 무대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노력과 진심이 담긴 이 특별한 무대를 함께 그리고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진이의 눈물

용동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양세리 공연시간 | 15분



작품소개

「아진이의 눈물」은 할머니의 사랑을 외면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진이가 뜻밖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이다.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용서,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내며,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의도 및 줄거리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진이는 어느 날 경찰에 붙잡히고,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진이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 이 작품은 아진이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친구에 대한 배려,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등장인물 소개



등장인물	배우	인물 소개
할머니	최송율	떡을 팔아 손녀를 돌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인물
정읍댁	고다은	할머니 곁에서 정을 나누는 이웃으로 극에 따뜻함과 웃음을 더하는 인물
아진이	박유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할머니의 사랑을 외면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주인공
희정이	홍라희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돕는 따뜻하고 용기 있는 친구
친구 1	송세민	아진이와 어울리며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는 친구
친구 2	은규성	아진이와 함께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인물
경찰관	박주원	아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
의사	김주운	쓰러진 할머니를 치료하고 아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인물
행인·종철이	정이준	떡을 사는 행인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연기하는 1인 2역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튜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용동초등학교 아홉 명의 어린 배우들이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펼쳐 본 대본, 낯선 대사와 어색한 몸짓에서 시작된 우리의 연극 이야기!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 있는 외침으로, 수줍은 표정은 생생한 감정 표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때로는 대사를 잊고 동선이 엉키기도 했지만, 실수마저 즐거운 배움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대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며 하나의 무대를 완성해 갔습니다. 「아진이의 눈물」을 연습하며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배려, 용서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연극은 단순히 배역을 연기하는 활동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아홉 개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함께 흘린 땀방울과 웃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22회 전북어린이연극제, 처음이라 더욱 설레고 뜻깊은 도전! 무대는 작아도 우리의 꿈은 큼니다. 아홉 명의 작은 배우들이 만들어 낼 따뜻한 울림,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원을 말해봐

전주전라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문성철 공연시간 | 30분



작품소개

매일 5개의 학원을 뱅뱅이 도는 주인공 '하늘'. "학원에 가기 싫어요!"라는 바람이 신비한 할머니를 만나 마법처럼 이루어지며, 엄마와 몸이 뒤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다! 서로의 삶을 살아보게 된 엄마와 딸은 과연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가족의 속마음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창작극.

작품의도 및 줄거리

하늘이는 엄마의 강요로 하루에 학원을 5개나 다니는 지친 초등학교생이다. 신나게 노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신비한 할머니의 마법으로 "학원에 가기 싫다"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늘이는 엄마와 몸이 뒤바뀌고 만다. 서로 뒤바뀐 몸으로 살아가게 된 둘은 서로의 삶의 무게를 체감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하늘이는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을 힘들게 한 줄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애절한 사랑을 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진심 어린 고백'. 과연 하늘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등장인물 소개



하늘 - 김린아
엄마 - 심서연
학교 선생님 - 송다은
현지 - 김은채
최산 - 윤도영
유진 - 최채원
재용 - 조진민
준호 - 이동찬
대한 - 이정훈
소원 할머니 - 고건희

호준 - 지승민
연서 - 김서연
희건 - 이한울
학원 선생님 - 김은주
마기옥 팀장 - 문소담
지우 - 최유지
은지 - 최다인
수빈 - 김소유
찬동 - 윤준호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톨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사랑하고 귀여운 우리 감자반 오늘 연극이 너희의 삶에 귀중한 경험이 되길 바랄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 무대에서 너희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오렴! 많은 대본양과 힘든 연기임에도 최선을 다해준 린아, 서연(심)이! 연출에 분장팀에 선생님 역할에 고생 많았던 다은이! 요즘 핫한 최산을 연기하느라 부끄러웠을텐데 섯트 나서준 은채, 도영이! 우리 감자반의 영원한 할머니 건희! 스태프 역할에 배우 역할까지 소화해준 채원이, 서연(김)이! 최고의 악역 전문 배우 진민이, 동찬이, 정훈이, 준호! 최고의 음향/조명 듀오 승민이, 한울이! 최고의 학원선생님 은주! 진짜 직장 상사같았던 소담이! 친구들 의상 준비해주고, 배우 역할까지 해준 유지, 다인이, 소유! 무대 뒤의 숨은 공헌자 무대팀 태현이, 진원이, 유한이! 필요한 물건을 다 준비해준 최고의 소품팀 서율이, 수아, 선후까지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 연극은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 우리의 이 소중한 추억을 고이 간직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학년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감자반(하트)

시간 정지 연구 보고서

치문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임솔민 공연시간 | 30분



작품소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싫은 주인공 '하루'.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멈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며 시간 정지에 도전하는 하루와 친구들! 과연 이들은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작품의도 및 줄거리

어른이 되기 싫어서 시간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공부도 시험도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시간을 멈추고 싶어 하는 하루와 친구들은 다양한 생각과 방법으로 '시간 정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와 친구들의 시간 정지 연구를 따라가며 시간이 멈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상상해 봅시다.

등장인물 소개



하루 - 전영준(2)
구름 - 서예슬(3)
하나 - 류현서(3)
세희 - 류세현(5)
선생님 - 신혜원(6)
시계 - 문주아(5)
타임오버 - 최서후(2)
김강총 - 김태희(5)
이가면 - 이진언(5)
토끼 - 김시아(4)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토크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우리 학교 연극동아리는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체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다양한 연극 놀이를 하고 연극을 관람하며 연극을 체험해 보았으며, 2학기에는 공연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무대를 같이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표현을 공유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서 시작된 표현이 모두의 장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우리의 장면을 함께 즐길 차례입니다.

2026. 10. 29. (목) 13:30~14:00

꿈을 찾아서

무풍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김진호 / 소아랑 공연시간 | 20분



작품소개

꿈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작품의도 및 줄거리

꿈이란 건 뭘까.

우리 모두 각자 마음 속에 꿈이 있다. 있거나 있었다. 하지만 이 꿈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꿈을 잊은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으러 갑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입니다.

등장인물 소개



사회자 - 최영철, 정진우(6학년)
선생님 - 최영철
춘식 - 박준성(6학년)

엄마 - 송다울(6학년)
범 - 박범진(6학년)
의사 - 김한별(5학년)

마음의 소리 - 최영철, 정진우, 김한별
지후 - 박의찬(3학년)
문어의 꿈 노래 - 박세영(1학년), 박범호(유치원), 박지용(3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토크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밤에 별이 반짝이는 무풍초등학교 반짝반짝 빛나는 1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6명, 유치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떤 연극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2학기에 연극캠프를 진행했고, 약 한 달 전부터 대본으로 연극연습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연극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나 자신과 서로를 믿으며, 응원하며 무대로 올라갑니다. 무대는 관객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관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 친구 고고

전주서문초등학교

원작 | - 지도교사/ 강사 | 노을이 공연시간 | 30분



작품소개

이 이야기는 '소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반응,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 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연극 놀이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작품의도 및 줄거리

소통을 하려면 꼭 '언어'가 필요할까요? 언어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리고자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등장한 낯선 아이, 등장과 언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과연 이들은 서로 통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 소개



샤샤 - 강지우(6학년)
더더 - 김우주(6학년)
주주 - 김주원(6학년)
고고 - 김태환(6학년)
도도 - 노다움(6학년)
타타 - 노승건(6학년)

다다 - 유다정(6학년)
루루 - 유은솔(6학년)
나나 - 유정원(6학년)
까까 - 유혜린(6학년)
해해 - 육해민(6학년)

꾸꾸 - 윤채윤(6학년)
토토 - 이지후(6학년)
히히 - 이하희(6학년)
리리 - 정소담(6학년)
채채 - 진채은(6학년)

하하 - 한울(6학년)
무무 - 이은섭(6학년)
스태프 - 정단아(6학년)
스태프 - 윤찬영(6학년)
스태프 - 봉은수(6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톨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물방울>은 6학년 2반 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동아리입니다. 1학기에는 창체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연극의 기초를 배우고 연극 놀이를 통해 효과적인 표현과 소통을 경험하였으며 2학기에는 공연을 위해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여 아침시간과 점심시간까지 불태웠습니다. 연극놀이의 생동감과 활기를 공연에 불어넣어 우리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용서할 결심'

소양초등학교

원작 | 사자가 작아졌어! 지도교사/ 강사 | 강신인 공연시간 | 30분



작품소개

‘사자가 작아졌어!’ 그림책을 1학년 8명과 담임교사가 함께 읽고 각색한 연극 ‘용서할 결심’은 엄마를 죽인 심바(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운 리아(가젤)가 족장 하마르를 찾아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요청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의도 및 줄거리

리아(가젤)는 몸이 작아져 개울에 빠진 심바(사자)를 구해주었는데 그게 바로 엄마를 잡아먹은 원수라는 걸 알고 괴로워합니다. 리아(가젤)가 심바(사자)를 다시 개울에 빠트리려 하자 심바(사자)는 리아(가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용서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용서를 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 지지만 고통을 준 대상을 용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잘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잃은 리아(가젤)은 엄마를 죽게 한 심바(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 소개



리아(가젤) 1, 천사 - 정다연(1학년)
리아(가젤) 2 - 이해령((1학년)
심바(사자) 1 - 이예나(1학년)
심바(사자) 2 - 송재원(1학년)
리아 엄마(가젤) - 오아란((1학년)
조정자(족장 하마르), 악마 - 황다연(1학년)
협력 조정자(부족장 부시), 심바 3 - 김설민(1학년)
해설자 - 박아인(1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연극반 돌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1학년 8명으로 구성된 소양초등학교 연극반입니다.

‘사자가 작아졌어!’ 그림책을 1학년 8명과 담임교사가 함께 읽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자가 작아졌어!’ 그림책을 ‘용서할 결심’이라는 연극으로 함께 창작 각색했습니다.

역할을 함께 정하고 대본 리딩을 하며 각색한 대본을 여러 차례 함께 수정했습니다.

무대 배경 제작 및 형상화도 1학년 아이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연극 놀이, 그림책으로 연극을 알아가며 교과(국어, 통합)와 연계하여 운영했습니다.

‘용서할 결심’ 연극 활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심으로 사과하고, 따뜻하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6. 10. 30. (금) 13:30~14:00

잡아먹지 않을게!

전주홍산초등학교

원작 | 동화 각색 | 지도교사/ 강사 | 최수혜 / 김건희 | 공연시간 | 15분



작품소개

이 작품은 유명한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창의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무서운 늑대가 사실은 돼지 형제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였다는 반전과 트위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는 참된 우정과 화합의 가치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발산하는 아이들의 끼를 담기 위하여 동물극 형태를 생각하였고, 집에도 인격을 부여하는 등 아이들의 개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작품의도 및 즐거이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짓던 돼지 삼형제 앞에 무서운 늑대가 나타납니다. 돼지들은 늑대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도망치지만 사실 늑대는 겉모습 때문에 친구를 만들지 못해 수줍게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 무너짐 사고 속에서 늑대가 첫째 돼지를 구해주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등장인물 소개



첫째 돼지 - 이재운(4학년)
둘째 돼지 - 이설빈(4학년)
셋째 돼지 - 김수인(4학년)
늑대 - 정태연(4학년)
바람 - 곽건(4학년)
나무집 - 최유진(5학년)
벽돌집 - 김은결(6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톨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연극 기능 보다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 연극 관련 동아리 활동이 전무하였고, 일과가 끝난 방과후에 이루어져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와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마침내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밝고 순수한 우리 홍산초 학생들의 에너지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운영 대상은 4~6학년 7명입니다. 연극에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학년 상관없이 방과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8월 ~ 10월로 3개월간 집중 운영하였고,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운영하였습니다. 8월은 연극 놀이를 통한 마음 열기와 대본 및 배역 선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장면별 동선 연습, 효과음, 소품 제작을 하였습니다. 10월은 전체 리허설 및 찾아가는 예선 심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법

장수초등학교

원작 | 창작 지도교사/ 강사 | 박재아 공연시간 | 20분



작품소개

친구에게 양보하는 대신 돈과 고집으로 사람을 붙잡으려 했던 소년 '이로니'의 이야기입니다. 로니가 초등학교에서 직장인이 되기까지 결의 사람을 하나둘 잃어 가는 과정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인간 VAR 판독', '스팸 차단 댄스단', '뽕사리 피리 요정' 같은 코러스의 코믹 연출로 웃음을 주고, 마지막 '만약에' 환상 장면에서는 결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묵직하게 전합니다.

작품의도 및 줄거리

(작품의도) 친구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먼저 양보하고 "미안해"라고 말하는 용기가 진짜 멋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연기하며 느끼고 관객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줄거리) 고집 세고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로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장까지 친구와 연인, 가족을 하나둘 잃고 혼자가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의 마법사'가 나타나 로니가 놓친 '만약에'의 순간들을 보여 줍니다. 로니는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친구에게 먼저 패스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지금 결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 달라고 전합니다.

등장인물 소개



어린 이로니 - 박지현(5학년)
성인 이로니 - 박수현(6학년)
윤슬 - 정도윤(5학년)
시간의 마법사 - 이태영(5학년)
준우·민수·도현 - 최준환, 김하준, 문주원(5학년)
병찬·서진·현준, 코러스 - 최건우(5), 황예준(5), 김태림(6학년)
아버지, 현수형 - 이다찬(6학년)
민우·석진 - 최준환, 문주원(5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토크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우리 연극반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에 대본을 처음 펼쳤습니다. 주어진 동아리 시간이 많지 않아 대본 읽기, 배역 정하기, 장면 만들기를 토크이 이어 가며 작품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을 쪼개 15~20분씩 막별로 장면을 연습했고, 하교 후에도 남아 동선과 코믹 연출을 맞춰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한 아이들이었지만, 연습이 쌓이며 대사 한 줄과 몸짓 하나에 진심을 담게 되었습니다. 특히 6학년 선배들이 앞장서 장면을 이끌고 5학년 동생들을 챙기며, 학년을 넘어 함께 무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년이 부딪히고 맞춰 가는 과정 자체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우리 작품의 메시지를 몸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우리

술산초등학교

원작 | - 지도교사/ 강사 | 오경조 / 김소슬 공연시간 | 25분



작품소개

술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공동 창작으로 탄생한 연극 <우리 만의 우리>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겪는 소통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창작 연극입니다. 동물원의 인기스타인 래서판다, 여우, 코끼리, 원숭이, 미어캣, 아기곰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인간들의 무심한 행동과 외모 중심의 평가 그리고 오해로 인해 상처를 받고 동물원을 탈출하는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본 작품은 동물과 인간의 소통 과정을 통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도 및 줄거리

이 작품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은연중에 씌우는 '편견의 우리'를 깨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술산 동물원의 동물들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시선과 플래시 세례, 외모 차별에 지쳐 탈출을 감행합니다. 사살 위기까지 처하며 두려움에 떨지만, 한 아이와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은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물들을 철창이 아닌 '편견의 우리' 속에 가두었음을 깨닫고 반성하며, 동물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동물원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앵커 - 이소윤(6학년)
코끼리 - 최예담(6학년)
원숭이 - 구동연(3학년)
래서판다 - 노다빈(5학년)
여우 - 최예서(4학년)
미어캣1 - 우연수(3학년)
미어캣2 - 우연주(3학년)
아기곰 - 최태웅(1학년)

사육사 - 우준혁(5학년)
아이 - 권도경(2학년)
시민(기자)1 - 최별(5학년)
시민(기자)2 - 최태양(3학년)
시민(기자)3 - 강시윤(2학년)
시민(기자)4 - 주찬윤(4학년)
시민(기자)5 - 주하윤(4학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우리 학교 연극반 톺아보기 (대본 펼치고 무대 오르기까지의 여정)

우리 학교 연극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때문에 연극을 향한 흥미나 성향이 저마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특히 연극이라는 낯설고 어색한 장르에 소극적이던 아이들을 데리고 첫걸음을 떼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니다. 쑥스러움에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읊던 저학년 동생에게 고학년 형·누나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건네는 격려의 말은 교실 풍경을 한히 밝혔습니니다. 아이들은 완성된 결과물보다 스스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연습하는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 시작했습니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내딛어 온 아이들,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환하게 피어날 그 소중한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전북어린이연극제 연혁



회차	대회기간	장소	참가교	최우수작품 수상작	전국대회 입상 내역
1회	2005.10.12.~14	전주 소극장 「판」	4교	<서동을 찾아서> 익산함열초등학교	제1회(1992) 성당초 은상 수상 제3회(1994) 성당초 금상 수상 제8회(1999) 덕과초 동상 수상 제13회(2004) 함열초 금상 수상
					제14회(2005) <추억은 방울방울> 고창초등학교 은상 수상
2회	2006.11.9.~11.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7교	<우리는 친구야> 옥봉초등학교	제15회(2006) 옥봉초 동상 수상
3회	2007.10.16.~19.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10교	<왕따> 고창초등학교	제16회(2007) 고창초 동상 수상
4회	2008.9.29.~10.3.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7교	<암행어사 출도야> 전주용흥초등학교	제17회(2008) 전주용흥초 장려상 수상
5회	2009.10.13.~16.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8교	<학교를 지켜라> 선연초등학교	제18회(2009) 선연초 동상 수상
6회	2010.10.5.~9.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9교	<사랑의 교실> 매산초등학교	제19회(2010) 매산초 장려상 수상
7회	2011.11.4.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5교	<강아지똥> 소룡초등학교	-
8회	2012.10.16.~17.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6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인계초등학교	제21회(2012) 인계초 장려상 수상
9회	2013.10.15.~17.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5교	<반장 길들이기> 도학초등학교	제22회(2013) 도학초 장려상 수상
10회	2014.10.15.~17.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7교	<동감 2014> 신덕초등학교	제23회(2014) 신덕초 장려상 수상
11회	2015.10.13.~16.	전주교육대학교 소강당	13교	<비밀의 일기장> 왕복초등학교	제24회(2015) 왕복초 금상 수상
12회	2016.10.18.~21.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5교	<동네북> 술산초등학교	제25회(2016) 술산초 장려상 수상
13회	2017.11.1.~3.	군산어린이공연장	16교	<난쟁이와 웃음총> 황산초등학교	전국대회 미개최
14회	2018.11.6.~9.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5교	<살구꽃 피는 날> 전주새연초등학교	제26회(2018) 전주새연초 금상 수상
15회	2019.11.5.~8.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교	<요술모자> 술산초등학교	제27회(2019) 술산초 장려상 수상
16회	2020.11.2.~ 3.	영상 개최 -코로나 시기-	15교	<시조세> 심원초등학교	전국대회 미개최
17회	2021.10.25.~11.	영상 개최 -코로나 시기-	19교	<한이의 책가방> 정읍서초등학교 <우리는 이름 없는 독립군의 후예다> 술산초등학교	제28회(2021) 정읍서초 금상, 술산초 은상 수상
18회	2022.11.8.~10.	영상 개최 -코로나 시기-	11교	<돌 씹어먹는 아이> 산서초등학교 <전학생은 처음이라> 고창부안초등학교	제29회(2022) 고창부안초 금상, 산서초 은상 수상
19회	2023.11.7.~10.	전주한벽극장	13교	<VRibrary> 고창부안초등학교	제30회(2023) 고창부안초 금상 수상
20회	2024.11.6.~8.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	9교	<우리가 꿈꾸는 동그라미> 전주서문초등학교	제31회(2024) 전주서문초 금상
21회	2025.10.14.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로 통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5교	<우리의 친구> 전주서문초등학교	제32회(2025) 전주서문초 은상

2026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제22회
전북 어린이
연극제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연극연구회·전북교사극단
